

# 무주군, 예산 4천억 시대 열다

### 제1회 추경예산 4007억원 의결... 본예산 대비 9.9%, 361억원 증액

무주군 예산이 드디어 4천억 고지를 넘어섰다. 24일 무주군의회를 통해 의결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은 4,007억 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9.9%, 361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특히 무주사랑 상품권 운영에 2.2억 원, 로컬 잡 센터 운영에 3.8억 원, 안성낙화놀이 전수관 건립 10억 원, 구천동 상징게이트 개선 2.5억 원, 무주장편영화 제작지원 2억 원, 도시공원 조성 4억 원, 예체문화관 개보수 사업에 16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는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일자리 확충, 군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둔 것이 눈에 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4천억 예산은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라며 "군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생활 SOC 확충, 현상 중심의 생활행정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는 334억 원이 증가된 3,55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 원이 증가된 457억 원이다. 세입의 주요 재원은 △세의수입 25억 원, △지방교부세 267.6억 원, △조정교부금 등 7.5억 원,



무주군의회를 통해 의결된 올 제1회 추경예산은 4007억원이다. 사진은 무주군청 전경.

△국·도비 보조금 39.8억 원 등 증액 분이다.

분야별 세출 규모를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전체 872억 원(21.8%)으로 가장 많고, △환경보호 분야 603억 원(15%), △사회복지 분야 567억 원(14.1%), △문화 및 관광 분야 415억 원(10.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43억 원(6.1%), △수송 및 교통 분야 184억 원(4.6%), △일반공공행정

199억 원(5%), △보건 분야에 68억 원(1.7%),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7억 원(1.7%) 순이다.

한편, 올해 무주군의 제1회 추경예산 4,007억 원은 역대 최대 규모로 2016년에는 3,143억 원, 2017년에는 3,202억 원, 2018년에는 3,415억 원이 편성되는 등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보건의료원, 국가예방접종 유공 표창

### 65세 이상 주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

무주군 보건의료원이 24일 제9회 예방접종주간(4.22.~28.) 기념행사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주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유공표창은 현직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수행해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다양한 감염병 예방사업 활동을 전개해 국민건강 보호와 사회안전 강화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상이다.

본부장 상을 수상한 무주군 보건 의료원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과 △접종시간(오전 8시부터)확대, △미접종 영유아 예방접종 독려(지속적인 모니터링, SMS 및 우편, 유선전화 등)를 통한 영유아 완전접종률 98.01%에 도달해 호평을 받았다.

또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 △65세 이상 주민들과 의료

수급권자(1종, 2종)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는 △50세 이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확대·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8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향상(접종률 75% 달성 목표)을 위해 대상자에게 우편 발송 및 유선연락을 하는 한편, 이장회의와 전광판 등을 활용한 보다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김동필 과장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면역력 강화와 감염병 발생률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표준예방접종 지침을 준수한 시기별 적정예방접종을 진행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보건의료원 건물 전경.

## 진안 재활 프로그램 정신건강지킴이 역할 '톡톡'

### 중증정신질환자들 대상 훈련·교육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성을경)는 만성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생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신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주간재활 프로그램은 진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중증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지재활, 일상생활 훈련,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안정, 사회기술훈련, 약물 및 증상관리 교육

등 주 3회(화, 수, 목요일 오전) 운영한다.

전문 강사에 의한 요리·공예·음악 치료와 치료 레크레이션, 생활체육, 약물교육 등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회원들의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해 월 1회 문화체험 시간으로 영화 관람, 족욕, 미아산 산책 등 체험활동도 이뤄지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조기 정신

증 환자 발견과 정신병원 퇴원환자 관리, 재가방문 사례관리, 상담실, 자살/우울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교육 및 상담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063-430-8528)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로 정신질환자들이 일상생활 기능을 유지하고 의미있는 대인관계 형성, 직업생활 등 어엿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공무원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교육

장수군은 24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공무원 근로자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안전과 사고예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한산업보건협회 김진

만 차장이 강사로 나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골격계 예방과 관리 주제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이해,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과 예방법, 스트

레칭 등을 교육했다.

장영수 군수는 "정기적인 산업안전 교육을 통해 공무원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2019년도 변암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

### 문화체육장 박종열·산업공익장 박동식 씨

제49회 장수군 변암면민의 장(면장 배형근) 수상자 2명이 선정됐다.

장수군 변암면은 최근 배형근 면장, 지역발전 위원장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변암면민의 장 심의위원회를 갖고 문화체육장에 박종열(69)씨, 산업공익장에 박동식(70)씨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종열 씨는 1995년 변암면 체육회 창립을 위한 기부와 활동으로 변암체육회를 창립하는데 기여했으며 1999년 변암면체육회 제2대 회장에 취임해 2000년도에 통합면민의 날을 추진하는 등 공을 세웠다.

이밖에도 2001년도 배드민턴 동호회 초대회장 역임, 2019년 탁구 동호회를 구성 초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변암면 체육활동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

가됐다.

산업공익장에 선정된 박동식 씨는 1986년 변암면에 독보적인 기술로 장수풍물축제 공장을 운영해 전국에 판매하는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995년 장수군의회 감사패, 1996년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수군 지회 감사패, 1998년 장수경찰서장 감사패 등 다수의 감사패를 수여하고 후원과 봉사를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배형근 면장은 "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은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변암면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면민의 장으로 수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매아리



## 진안군의회 제3차 본회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진안군의회(의장 심갑수)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안군의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우규 의원, 간사에는 정옥주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에 구성된 진안군의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 함)는 25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하게 된다.

특위는 진안군의회원의 회계 및 운영 전반과 관리감독 기관에 대해 3개월여 동안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시작하여 7월 예정인 제254회 임시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사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우규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주된 목적은 진안군의회와 관련된 회계 및 운영 전반을 조사하여 인력 운용과 재정의 투명성 확보 등 개선책 제시에 있다"며 "군민의 의료복지 구현을 위해 성실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식량산업 발전협의회

진안군은 24일 식량산업발전 위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식량산업 발전협의회를 상환실에서 개최했다.

식량산업 발전협의회는 진안군의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식량산업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지원, 투자를 통한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다. 최상용 군수권한대행을 위원장으로 관내 기관, 농협, 식량작물 생산·유통조직 대표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식량산업 발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진안군 식량산업 발전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벼 저장·건조시설(DSC)지원사업을 관내 농협이 연합하여 신청하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다뤘다.

최성용 부군수는 "진안군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통해 식량작물 생산조직을 육성하고 유통 활성화와 브랜드 육성 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장기적인 식량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